

KOREAN AUCKLAND COMMUNITY CHRISTIAN CENTRE

H/35 Constellation Dr. Rosedale Auckland 0632 New Zealand
Tel. 64-9-478-5853 / Mob. 64-21-705-303 / kfc5255@yahoo.co.kr / 070 8699 5853

Rev. Keun Taek LEE, D.Min. Missionary

* : 국민은행 204-01-0864-631 (예금주 이근택) / 외환은행 620-205830-201 (예금주 이근택)

사랑하는 해운대제일교회 세계선교위원장님과 교우들께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곳은 이제 긴 우기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반짝 해가 나면 또 다시 비바람이 몰려오기를 반복하는 계절입니다.

고국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조국과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도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서신이 늦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그동안의 저희들의 사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커뮤니티교회 사역

오클랜드커뮤니티교회는 2003년 6월 1일 첫 주일, 밧단아람으로 가던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하던 그 심정으로 오클랜드 동쪽 파쿠랑가의 작은 커뮤니티 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주님의 복을 입어 공장 건물을 구입하고 내부 수리하여 교회로 사용하며,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기지 이자를 내야 하는 날이 매월 돌아올 때면 아슬아슬하다는 마음이 들어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만한 비용은 들지 싶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민사회 주변을 돌아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은 큰 변화 없이 은혜 중 평안합니다.



말씀과 성령집회

1월 22일부터 4주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과 성령집회”를 하였습니다. 주님과 만남(Encounter), 영적 각성(Awakening), 하나님을 섬김과 예배(Worship) 그리고 선교(Mission)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집회는 2월 마지막 주간에 있을 인도 단기 선교를 맞추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집회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성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귀중한 통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 전도 집회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인도 웨스트벵갈 주와 오릿사 주에서 선교지원을 겸한 전도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이 두 지역은 복음화가 1%도 채 되지 않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박해

KOREAN AUCKLAND COMMUNITY CHRISTIAN CENTRE

H/35 Constellation Dr. Rosedale Auckland 0632 New Zealand

Tel. 64-9-478-5853 / Mob. 64-21-705-303 / kfc5255@yahoo.co.kr / 070 8699 5853

Rev. Keun Taek LEE, D.Min. Missionary

* : 국민은행 204-01-0864-631 (예금주 이근택) / 외환은행 620-205830-201 (예금주 이근택)



지역으로 GMS 동인도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스크릿 로이 선교사의 사역지였습니다.

로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한 주간은 오릿사 주에서 순회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곳은 급진적인 힌두교인들의 박해로 인해 호주 출신의 한 선교사가 자동차 안에서 두 아들과 함께 불에 타 순교하였던 지역입니다. 인하여 평지 마을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들과 산으로 도망가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캘커타 숙소에서 저녁 7시 반에 출발하여 첫 방문지인 오릿사 주 골라문다 마을까지 꼭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방문한 골라문다 마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 받는 마을을 벗어나 넓은 들에 모여서 사는 아디바시 우루두족이라는 종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나바랑푸르라는 마을도 산을 넘고 또 넘어 박해를 피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다니엘 사파티 목사는 박해 기간 동안 세 번이나 죽을 뻔했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했다고 간증해 주었습니다. 박해 받는 성도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일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릿사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 웨스트벵갈의 캘커타와 캐닝에서의 집회는 또 다른 감격을 주었습니다. 캐닝에서 모인 집회는 12시간 기차를 타고 온 성도들, 5시간 동안 배를 타고 온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회에서 주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었던 환자가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추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왔던 환자가 걸어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계속 되는 집회 인도와 잠시라도 시간만 남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하는 등, 분주한 사역을 한 탓에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는 다리가 통통 붓고 설사병이 생기더니 돌아와서도 거의 열흘간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오십견으로 한쪽 어깨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비행기표를 구입해놓고도 제 몸이 이렇게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과연 인도 집회를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며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알기에 더욱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싶었습니다. 역시 주님은 조금도 후회감이 들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C-Channel 인터뷰 방송

2015년은 새해 방송 인터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월 1일 인터넷 기독교방송인 씨채널 구매거진 시간에 뉴질랜드의 선교 소식과 새해 인사를 인터뷰를 통해 하였습니다. 지난 해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과 뉴질랜드 부흥 소식을 모아 전해드렸습니다.

재뉴 총신동문회 섬김

지난 2월 9일에는 뉴질랜드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총신 동문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서로 얼굴을 보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의 기쁨은 짧은 날 시기는 각자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학교의 교정에서 생활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동질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올해의 재뉴 총신동문회를 섬기는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기왕

KOREAN AUCKLAND COMMUNITY CHRISTIAN CENTRE

H/35 Constellation Dr. Rosedale Auckland 0632 New Zealand

Tel. 64-9-478-5853 / Mob. 64-21-705-303 / kfc5255@yahoo.co.kr / 070 8699 5853

Rev. Keun Taek LEE, D.Min. Missionary

* : 국민은행 204-01-0864-631 (예금주 이근택) / 외환은행 620-205830-201 (예금주 이근택)

이면 낮은 땅에서 살아야 하는 동문들에게 좋은 버팀목 되어주고, 큰 나무가 되어 선후배들의 쉼의 장소를 제공하는 일꾼 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에는 현재 약 28명의 총신 동문이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사역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GMS 뉴질랜드 지부 모임

GMS 뉴질랜드 지부는 매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각자의 사역을 보고하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우리 교회당에서 지부 모임을 가졌으며, 8월 4일부터 7일까지 본 지부와 재뉴 총신동문회, 뉴질랜드노회가 함께 어우르는 선교대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오클랜드한인교회 협의회

오클랜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목회자, 선교사들은 오클랜드한인교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격월로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역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도 오클랜드 온누리비전교회에서의 모임에 함께 참석하여 유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City Glory Church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당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현지인 시티글로리 교회는 다양한 민족들이 참석하며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하며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형제교회입니다.

오십견과의 투병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되었던 오른쪽 어깨의 통증이 1년 2개월이 지난 올 5월 어느 날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심할 때는 한밤에 네다섯 번씩 잠을 깨야했고, 덕분에 2시간 반에 교회에 올라와 밤새도록 기도하는 복을 받은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꺼내기가 불편했고, 손을 들고 축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때도 있었습니다. X 레이를 찍고, 초음파 검사를 하며 권해주는 모든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1년이 넘어서야 조금 나아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무력감과 일종의 우울감은 마치 지난날 위암 수술 후 겪어야 했던 증후군 같았음을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겪어야 했던 지난 한 해 동안의 과정은 건강했던 분들이 겪는 과정과 달랐던 이유가 저에게만이 있는 지난날의 병력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어깨가 조금 나아져서 팔이 돌아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왼쪽 어깨에 통증이 오고 굳어져 감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순간 순간 찾아오는 무력감과 감정의 기복이 전 같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오십견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KOREAN AUCKLAND COMMUNITY CHRISTIAN CENTRE

H/35 Constellation Dr. Rosedale Auckland 0632 New Zealand

Tel. 64-9-478-5853 / Mob. 64-21-705-303 / kfc5255@yahoo.co.kr / 070 8699 5853

Rev. Keun Taek LEE, D.Min. Missionary

* : 국민은행 204-01-0864-631 (예금주 이근택) / 외환은행 620-205830-201 (예금주 이근택)

기도 제목

1. 오uckland커뮤니티교회가 주 안에서 부흥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 하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 되어 더욱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저희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근택 선교사의 오십견으로 인한 어깨 통증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3. 또 다른 사역자들과의 좋은 동역을 통해 선교 사역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뉴질랜드의 키위 사역자들과의 동역을 통해 뉴질랜드의 부흥을 이루고, 한인 목회자들과의 동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매월 감당해야 하는 모기지 이자와 멈출 줄 모르는 렌트비 상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뉴질랜드 거주 후 열 번째 이사를 지난 1월에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렌트비 상승과 물가 상승, 그리고 교회 건물 구입으로 인한 모기지 이자가 매월 압박감으로 밀려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학업 중에 있는 큰아들 이봉로 전도사를 비롯한 이곳의 금희, 지희, 경로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도 이들은 귀한 동역자였으며, 결혼한 지금도 모두 우리 교회에 나오며 사역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혹은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동역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 또한 오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그것도 기쁨으로 동역해주는 사람은 자식뿐이라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께서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온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의 살롬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2015년 6월 29일

뉴질랜드에서

이근택 이진숙 선교사 드림